

대안적 플랫폼과 작업조직

Laura Aufrère (프랑스 파리 13대학, CEPN)

Guillaume Compain (프랑스 파리 도핀대학, IRISSE)

Philippe Eynaud (프랑스 IAE de Paris, GREGOR)

Lionel Maurel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 InSHS)

Corinne Vercher-Chaptal (프랑스 파리 13대학, CEPN)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들을 상호 연결해 줌으로써 유료 혹은 무료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특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디지털 플랫폼이 그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Carballa, Coriat, 2017). 일부는 자산기반 개발(property-based development)의 논리를 따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활동을 조직하지만 윤리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하나는 플랫폼 기업(platform-company)으로, 자본주의적 플랫폼의 특징을 지닌다(Srnicek, 2017; Fuster Morell, 2018).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혁명을 기회로 삼아 설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독점, 추출, 처리, 통제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안적 플랫폼(alternative platform)으로 자본주의적 플랫폼의 확장과 이러한 플랫폼의 패권적 목적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협동적 측면과 전통적인 시장경제로부터의 해방에 중점을 둔 방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랫폼 운영과 플랫폼에서 창

* 이 글은 CEPN(Centre d'économie et de gestion de l'Université Paris 13 - UMR CNRS 7234)과 커먼즈 협동조합(La Coop des Communs)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프로그램(TAPAS - There Are Platforms as Alternatives)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출된 수익은 공유된다. 이와 같이 대안적 플랫폼은 전적으로 상업적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며,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Morell, 2018).

지난 1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여러 대안적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Morell, 2018), 이러한 대안적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징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안적 플랫폼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새로운 고용형태라는 측면에서 대안적 플랫폼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데, 이 글에서는 플랫폼 개발자,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가(free software activists), 사회연대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Plateformes en Communs'에서 실시된 워크숍을 통해 얻은 식견뿐만 아니라, (자전거 배달, 지역식품유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랑스의 대안적 플랫폼들에 대한 여러 사례연구들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답변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새로운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변화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틈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을 찾아내야 한다. Srnicek(2017)에 의하면,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의해 가속화된 21세기 자본주의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원료인 데이터에 주목하였다. 데이터는 기업 경영 및 노동자, 고객, 공급업체 및 도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빠른 속도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혁신에 뒤이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 및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였다. “플랫폼은 기업 자체의 데이터 관리 수요에서 비롯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점점 더 늘어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독점, 추출, 목록화, 분석,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이 곧 입증되었다”(Srnicek, 2017: 66). 플랫폼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고객, 광고주,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 공급자)를 중개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다. 경제학 논문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특징 중 양면시장 또는 다면시장(two-sided or multi-sided

market)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에 두고(Rochet & Tirole, 2006) 플랫폼 기업의 발전을 몇몇 주요 불변요소들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메트칼프의 법칙(Metcalfe's law)으로 설명되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다. 네트워크 효과는, 잠재적 이용자들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가 더 높다고 느끼는 데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용자의 규모가 더 많은 사용자를 만들어내는 순환이 반복된다.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와 매우 낮은 한계비용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하여,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기업들의 무한한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되면 단기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처음부터 '승자독식'의 역학에 의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선구적인 플랫폼들은 시장을 지배하고 향후 게임의 법칙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들을 활용하여 유기적, 외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잘 알려진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수익보다 성장(growth before profits)' 전략의 당위성을 설명해 준다.

플랫폼 경제는 생산 공간, 작업 과정 및 노동 제도의 정의 및 개요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Supiot, 2017).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는, '온디맨드 기술 및 디지털 시장을 통해 촉진된 비정규 노동의 한 형태'로 정의되는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 '긱 경제(gig economy)' 및 플랫폼 기반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Sundararajan, 2016; Land-Kazlauskas & Johnston, 2019). 현대 산업에서 사용되는 무기고용이라는 개념과 비교할 때 플랫폼은 연속성이 없는 업무이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긱 경제는 일반적으로 비전형적인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긱 경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재량에 따라 일할 수 있는(empowerment)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동시에 노동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oudary(2017)는 ILO에 노동 플랫폼의 주요 특징으로 노동자의 재량권과 노동 착취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작업 방식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커지고 시장 접근 방해요인들이 일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노동 플랫폼은 창업을 장려하고 단일 사용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이며 한계노동자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량권을 판단하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은 노동자가 가

격 결정과 고객 관계 관리에 있어 재량권을 갖는지 여부이며, 이러한 자율성(autonomy)을 통해 노동자는 자신의 평판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Choudary는 “노동자가 재량권을 갖는 조건들이 플랫폼이 판단하기에 시장 효율성 및 네트워크 성장에 필요한 조건들과 상충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현존하는 착취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Choudary, 2018:1). 각 경제는 노동의 정의 그 자체에 반하는 “노동의 임시직화(casualization) 및 비공식화(informalisation), 비정규 고용 형태의 확산과 같은 광범위한 현상의 일부”라는 노동의 극단적인 상품화를 초래하였다(De Stefano, 2016). 실제로 플랫폼 기업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알기 힘든 관리 규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들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유행동권(free agency)을 저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투명한 툴 제공자로 홍보한다. “플랫폼이 툴 제공자(tool provider)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시장 점유율 확보라는 일차적 기능을 보조하는 부차적 기능일 뿐이다”(Choudary, 2018: 13).

시장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 개발의 기본 틀을 설정하는 규칙도 플랫폼 소유자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우버(Uber)가 스스로를 시장 규칙을 수용하는 단순한 수용자로서 묘사하고 있음에도, 우버는 단독으로 이 시장이 취해야 할 형태를 결정하고 있다”(Srnicsek, 2017:48). 플랫폼 기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와 임금노동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온디맨드 플랫폼은 대부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자체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게다가, 웹(web)의 일부 이론가들에 의하면(Scholz, 2013; Casilli, 2015), 이 플랫폼 기업은 ‘무급 노동’에 의존한다. 실제로 이용자들은 상품(데이터와 콘텐츠)을 생산하는 무보수 노동자이므로 착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웹2.0(Web 2.0)의 구조상, 기업의 경계를 뒤로 밀어내 그 이용자나 소비자들의 협업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이용자나 소비자는 ‘professional(전문가)’ 또는 ‘producer(생산자)’라는 단어와 ‘consumer(소비자)’라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프로슈머(prosumer)’로 묘사된다. 끝으로, 제한된 수의 빅데이터 전문가와 프로그래머들만이 임금을 받으면서 알고리즘 개발 및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관여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발적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된 무료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보한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Casilli(2019)가 보여준 바와 같이, 플랫폼 이용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

는 사이에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격가치(value of qualification: 정보의 분류 및 평가), 이익 창출 가치(value of monetization: 수수료, 데이터), 자동화 가치(value of automation: 인공 지능의 훈련)라는 3가지 가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착취(abuse) 때문에, 협업 또는 공유의 논리를 통합한 대안적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다.

■ 대안적 플랫폼을 향하여

공유 플랫폼(sharing platform)에는 자본주의적 플랫폼의 확대와 그 패권적 목적에 맞서고자 하는 경향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대안은 두 가지 주요 추세를 근간으로 한다. 첫 번째 유형의 공유 플랫폼은 ‘디지털 커먼즈(digital commons)’의 전통과 일치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상으로 기여할 있도록 개방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른 유형의 대안은 플랫폼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적 전통을 명확히 따르고 있다.

공유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디지털 커먼즈 운동은 대형 독점적 기업인 GAFAM(Google, Apple, Facebook, Amazon, Microsoft)에 의한 지배에 맞서 저항할 능력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커먼즈는 배타적 소유가 가장 효과적인 자원관리 방식이라는 생각에 반기를 든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연구 이후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오스트롬은 일련의 권리들의 묶음이라는 형태(in the form of a bundle of rights)로 이용 및 운영권을 배분하여 자원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가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Ostrom & Schlager, 1992; Hess & Ostrom, 2007). 필자들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 또는 개발자 집단에 의한 무료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예를 들면서, 커먼즈에 기반을 둔 비물질적 자원의 관리에서 관찰되는 한계의 하나인 공동체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효율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조하였다. 인터넷은 공개적으로 상호 조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는 복합자원(complex resources)을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한다.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는 참여자 커뮤니티(contributor community)에 의

한 비물질적 자원의 생성을 가리키기 위해 ‘커먼즈 기반 공동 생산(communs-oriented peer production)’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Benkler, 2006). 디지털 커먼즈는 이해당사자 간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과 실재를 포괄한다.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일부 프로젝트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함으로써 기부 경제(giving economy)에 기반을 둔다. 다른 방안들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경제모델을 개발하여, 리소스 자체보다는 무료 리소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판매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커먼즈의 구성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일부 프로젝트는 여전히 디지털 통신을 사용하여 상호 조율하는 비공식적 참여자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관리는 하지 않지만 참여자 커뮤니티에 콘텐츠 호스팅을 위한 주요 인프라와 생산 툴을 제공하는 국제 재단과 같은 기관에 의존한다. 디지털 커먼즈 운동은 대형 독점적 기업인 GAFAM의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이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된다. 리눅스(Linux)는 원래 자발적 IT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이지만 이제는 GAFAM 기업뿐만 아니라 IBM, Cisco, Intel 등 대규모 기업의 90% 이상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한다. 일부 무료 소프트웨어의 존속 여부는 사실상 대규모 디지털 기업들의 지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부에서는 이 기업들을 ‘자본주의 커먼즈(capitalist commons)’라고 칭한다(Maurel, 2018). 이러한 한계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지배적 형태에 대한 대안을 구하는 또 다른 사상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플랫폼 협동조합주의(platform cooperativism)의 경우를 보면, 디지털 커먼즈의 약점으로 여겨지는 측면들, 대표적으로 소유권 및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반향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주의의 원리가 형성되었다.

트레버 솔츠(Trebor Scholz)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라는 용어를 만들고 짧은 논문(Scholz, 2016)을 통해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가지 원칙을 명시했다.

① 이용자의 플랫폼 공동 소유, ②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상업적 서비스의 경우), ③ 개인정보 수집의 투명성과 플랫폼 간 자유로운 정보 이동, ④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간 대화, ⑤ 플랫폼 이용자와 운영자의 업무 공동결정, ⑥ 플랫폼과 노동자 간 경쟁 등 관련 법적 보호 및 노동법 강화, ⑦ 플랫폼 간 이동 가능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장급여 지

급, ⑧ 플랫폼상 자의적 행위로부터의 보호, ⑨ 작업장 감시 제한, ⑩ 로그오프(log-off) 권리

업무 공동결정, 양질의 노동조건, 집단적 조직 및 소유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횡포에 반대하여 플랫폼 협동조합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입장이다. 운동으로서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사회연대경제(SSE)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개발된 자주경영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플랫폼에서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생산 및 거래 도구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을 수용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자본 기여를 통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은 재정적으로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소유자는 플랫폼의 실제 이용자이므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외부 투자 관계자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또한 실제로,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출된 수익의 대부분을 공동 소유 기업의 기금으로 보유하고 그 수익을 회수하는 대신 플랫폼에 재투자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1인 1표’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형태는 플랫폼 소유자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기여한 자본이 더 많다고 해서 다른 소유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협동조합주의 제도는 플랫폼의 집단적 소유를 허용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지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동자 집단을 재편성함으로써 공간과 노동자의 교체가능성(interchangeability), 즉 노동의 지나친 상품화와 비공식화를 막을 수 있다. 표준화된 작업뿐만 아니라 노동 공간의 분산, 사적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온디맨드(on-demand)’ 원칙, 노동자들의 단절, 교체가능성 및 고립이라는 특징은, 플랫폼 협동조합주의에서 집단적 관리 및 참여적 운영으로 대체된다.

디지털 커먼즈와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대안적 플랫폼으로서 여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커먼즈는 매우 광범위한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많은 수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목적을 둔 공개적 연대 방식을 취한다. 반면에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특정한 이해당사자 집단에 한정하여 공유가 이루어지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비교적 폐쇄적인 연대 방식을 추구한다. 이 두 운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한다. 디지털 커먼즈는 P2P 거버넌스를 우선으로 하는 반면에,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사회연대경제에서 유래한 ‘심의 원칙(deliberative principles)’에 의존한다. 특히 후

자의 경우, 노동자 공동체의 재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노동자 주주화를 추진하는 기술로서 노동법의 역할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

■ 실증연구

이 실증연구는 이 연구의 파트너인 커먼즈협동조합(La Coop des Communs)과 공동으로 수집한 9개 공유 플랫폼 사례를 기본으로 한다. 커먼즈협동조합은 연구자들과 공공부문 관계자들뿐 아니라 커먼즈와 사회연대경제 실무자들로 구성된 ‘공유 플랫폼(Platforms in Common)’이라는 작업그룹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대안적 디지털 플랫폼들은 관행을 서로 공유하며 “운영가능성에 목적을 둔 상호화된 툴박스(mutualized toolbox)를 만들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P2P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La Coop des Communs, 2018). 이 작업그룹의 목적은 통합적 거버넌스, 공정한 가치 공유, 데이터 윤리, 커먼즈 생산, 회원 간 협력이라는 5가지 원칙에 근거한 윤리규범에 부합되도록 플랫폼 커뮤니티를 수립, 운영 및 정비하는 데 있다.

여러 샘플링 기준들(플랫폼 활동 발달 수준 및 활동 부문의 다양성 등)을 교차 비교하여 9개의 공유 플랫폼을 선정하였다.

플랫폼	목적, 지위, 수입원
Les Oiseaux De Pas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 관광(Solidarity tourism) 목적지 팩토리(destination factory, 집단지성이라는 혁신적 과정 덕분에 현지 이야기의 공동생산과 접대와 발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방식)와 여행 팩토리(travel factory, 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공유 플랫폼) 공익협동조합(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SCIC) 연대 기반 재정(Solidarity-based financing) 및 가입비
Coop Cy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배달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자전거 배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open-source)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원들이 자신의 작업물 소유권을 공유하고 스스로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생성하며 상호 사회적 보호(mutual social protection)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협회 연대 기반 재정 - 배달원 및 협동조합 개별 가입. 상호화된 기여(mutualised contributions)

플랫폼	목적, 지위, 수입원
Rydl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차공유 서비스 통근과 같은 당일 이동을 위한 실시간, 단거리 승차공유(라이드 셰어링) 플랫폼 Rydlgo 어플리케이션은 가상통화(virtual money)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비용은 이동 거리에 따라 책정됨. • 노동자 협동조합(SCOP) • 중개수수료 및 연대 기반 재정
Mobic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승차공유 협동조합적, 시민적, 생태적, 연대 기반 플랫폼 이 협동조합은 승차공유 및 개인 간 차량공유, 건강상 이유나 디지털 격차 또는 지리적 격차의 이유로 이동 공유 접근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연대 교통이라는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 • 공익협동조합(SCIC) • 연대 기반 재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자 기부금
Open Food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유통단계 단축 프랑스 내에서 식품 유통단계를 단축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목표를 둠. 이 플랫폼은 제안 일람표, 상품 카탈로그, 온라인 매장, 온라인 결제, 청구서 작성 발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공익협동조합(SCIC) & 협회 • 연대 기반 재정 - 가입비
1D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한 문화 스트리밍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 공유를 통해 이러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에게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공익협동조합(SCIC) • 가입비 - 사적, 사회적 재정
Pwii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간 서비스와 물건의 교환 지역 주체들의 P2P 서비스 교환, 전문적 서비스 소비(현지 전문가 이용), 비용 부담(승차공유, 공동 텃밭 등) 또는 물건의 교환, 기증이나 상호화를 가능케 하는 유럽 차원의 플랫폼 • 벨기에 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 • 연대 기반 재정 -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 중개수수료는 없으며, 출판수수료는 자체 가상통화로 지급함.
France Ba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교환 네트워크 기업이 가상통화인 '바터 유로(Barter Euro)'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B2B 교환 플랫폼 • 공익협동조합(SCIC) •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Frama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소프트웨어 옹호 교육을 위한 협회 • 협회 • 연대 기반 재정(기부금)

■ 결과

이 연구에서 샘플로 사용된 플랫폼들의 특성이 활동 분야, 법적 지위, 개발 모델이 가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검토한 모든 방안들은 Polanyi(1941)가 의제 상품(fictitious commodities)이라고 밝힌 노동, 화폐, 토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재배태(re-embedding)'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샘플로 사용된 대안적 플랫폼들의 성격을 규명할 뿐 아니라 대안적 플랫폼들을 플랫폼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안적 플랫폼은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상반되는 접근 방식들, 즉 공개 디지털 커먼즈(open digital commons)의 경우와 유사한 광범위한 접근 방식과, 플랫폼 협동조합주의의 경우와 같이 집단적 소유에 기반을 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접근 방식을 절충함으로써 '재배태화(re-embeddedness)'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가 연구에서 검토한 공유 플랫폼들은 두 가지 전략을 절충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렴성은 플랫폼 내 상호화 메커니즘, 플랫폼 간 제휴,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공익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일부 개인들의 사명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의 '재배태'를 주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배태를 목격하게 되며, 이는 (이용자, 참여자)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로써 플랫폼의 발전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모든 협동조합식 플랫폼(platforms in the collective)은 심의를 위한 공간(spaces for deliberation)을 실험하고 있다. Coopcycle과 Open Food France는 자체 거버넌스를 행사하기 위해 상설 총회 운영을 요구한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뉴질랜드의 협동조합에서 만들어 낸 공동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인 Loomio를 이용하기도 한다. Pwiic의 경우, 여론조사에 답하거나 건의하거나 회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는 등 협력적인 활동에 참여하면 그 대가로 점수/포인트(credit)를 부여한다. Mobicoop에서는 여러 동심원에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

재배태는 노동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Coopcycle의 목적은 자영노동(self employed work)의 확대에 맞서 싸우는 모든 자전거 배달 협동조합

에 디지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Coopcycle이 협동조합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자전거 배달 사업을 임금노동과 관련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재편입시키는 데에 있다. 1D Lab은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와 인디 레이블에게 적절한 보수를 보장하겠다는 결의를 자체 현장에서 밝히고 있다. 평가와 관련하여, Les Oiseaux de Passage는 이러한 협동조합 방식 플랫폼의 호스트들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노동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요구하고 공동의 안녕을 위해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모델과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플랫폼들은 노동을 탈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적 결정에 더하여, 일부 협동조합 플랫폼은 전체의 이익 문제에 대응하거나 특정한 범주의 수혜자들을 지원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적 경제에서 다수의 협동조합 또는 연합체 형태의 조직처럼 단순히 자체 회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경제의 전통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대의명분을 지향한다. Ridygo는 공공 고용서비스기관과 같이 취업을 지원하는 단체들과 협력하여,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구직자들에게 점수/포인트(credit)로 지급함으로써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Mobicoop은 환경 위기를 고려한 차량 승차공유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Open Food France는 생태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 유통경로를 개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Les Oiseaux de Passage는 문화 유산과 인적 교류를 수호하고 거주민들의 공동체에 중점을 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 대중교육 플랫폼인 Framasoft는 기술을 통한 개인과 집단의 해방이라는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위해, 개인들이 자신의 데이터와 기술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Coopcycle의 경우, 배달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협동조합 플랫폼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자원을 개방하여 다른 주체들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대안적 플랫폼들의 활동 성향과 양식은 활동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플랫폼의 개발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의미와 모두 관련된다. 알랭 쉬피오(Alain Supiot)는 콜레주 드 프랑스(Collège de France)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21세기의 노동: 법, 기술 및 우리 세계’에서 미래에 대한 현 시대의 중요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하는 인

간들의 집단적 권리는 자신이 행하는 노동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Supiot, 2018). 그는 우리에게 호모 파베르로서 우리 행위의 인간적 의미는 우리의 노동에 있으며 이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필수적임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노동에는 항상 행위의 외부 세계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 차원과 자신에 대한 행위의 주관적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두 측면이 결합되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하게 된다”(Supiot, 2018). 이 글에서 다룬 사례에서, 사회적·환경적 안녕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기술적 도구와 시장경쟁 제약보다 우선시된다. 플랫폼들은 열린 거버넌스 원칙에 기반을 두고 노동을 조직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소비주의로부터 노동조건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노동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의미 있고 사회-환경적인 목표들을 고취시킨다. 경영은 신호나 전략의 피드백이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집단의 숙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한 경영 및 기술적 측면이 아마도 진실로 인간적인 노동조건을 순수한 결정체는 아니겠지만, 앞서 설명한 대안적 플랫폼들은 숙의 대상이 될 가시적 기술로서 설계된 기술적 도구와, 공동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한 의미 있고 논쟁적인 목표 공동 달성 사이의 기로에 있다. 더 지속가능한 방안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있는 대안적 플랫폼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의 미래를 위한 연구에 있어 새롭게 탐구해야 할 분야를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KLLI**

참고문헌

- Carballa-Smichowski, B. & Coriat, B.(2017), *Communs et Economie Collaborative : Jalons pour une définition*. Programme de recherche *Entreprendre En Communs*.
- Casilli, A.(2015), *Digital Labor : travail, technologies et conflictualités* in Cardon, D. & Casilli, A. *Qu'est-ce que le Digital Labor ?* Broché.
- Choudary, S.P.(2018), *The architectur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Policy recommendations on platform design for worker well-being (No. 3)*, ILO future of work research paper series. ILO.

- Coriat, B.(2015), *Le retour des communs. La crise de l'idéologie propriétaire*. Les Liens qui Libèrent.
- De Stefano, V.(2015), *The Rise of the 'Just-in-Time Workforce' : On-Demand Work, Crowd Work and Labour Protection in the «Gig-Economy»*.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2682602>
- Morell, M. F.(ed.)(2018), *Sharing Cities: A worldwide cities overview on platform economy policies with a focus on Barcelona*. Editorial University Oberta de Catalunya.
- Johnston, H., & Land-Kazlauskas, C.(2019), "Organizing On-Demand : Representation, Voice,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Gig Economy,"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94)54.
- Srnicek, N.(2017), *Platform Capitalism*. Polity Press.
- Supiot, A.(2012), *The spirit of Philadelphia: social justice vs. the total market*, Verso, London ; New York.¹⁾
- _____(2017), *Homo juridicus: on the anthropological function of the law*, Paperback edition. ed. Verso, London New York, NY.²⁾
- _____(2018), *Le travail au XXI^e siècle : Droit, techniques, écroumène*. Cours au Collège de France.
- Sundararajan, A.(2016), *The sharing economy :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Scholz, T.(2016), *Platform Cooperativism: Challenging the corporate economy*. Rosa Luxemburg Foundation.
- Polanyi, K.(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³⁾

1) [한국어 번역본] 알랭 쉬피오(2019), 『필라델피아 정신-시장전체주의 비판과 사회정의의 복원을 위하여』, 매일노동뉴스.
 2) [한국어 번역본] 알랭 쉬피오(2015), 『법률적 인간의 출현-법의 인류학적 기능에 관한 시론』, 글항아리.
 3) [한국어 번역본] 칼 폴라니(2009), 『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